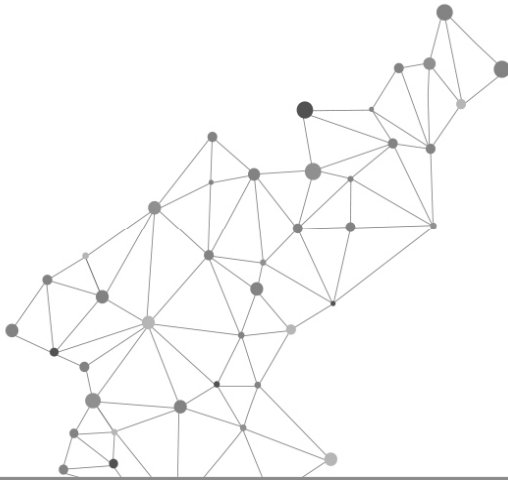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일 ~ 8월 31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일~8월 31일

대내경제 85

<인구>

북 출산율, 현재 인구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못미쳐
북한 5세미만 사망률 남한보다 8배 높은 1000명당 24명

<전력>

북,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난 타개 노력

<시장>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이 가지는 의미와 돈주의 역할
북한 물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
평성 돈주들의 교외 이주
저렴한 임대료로 제조업체 유치 노력

<농업·식량>

폭염으로 올해 농사 피해 우려
북한 주민 53.7% 농지 보유

<보건>

영·유아 영양실조 감소 추세지만 지역 간 차이 보여
북한 '홍역 퇴치국가' 인증 받아

<주민생활>

장마당 이용시간 제한으로 주민통제
인민군 부대 급식 일부 개선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일~8월 31일

대외경제 89

〈해외노동자〉

북한 숙련노동자 해외송출

〈남북관계〉

북한산 석탄 러시아 산으로 위장반입

〈북중관계〉

훈춘-나선 중국 관광객 증가

中, 단둥-신의주 신압록강대교 자금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영향,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인구>

파이낸셜뉴스(7.20), RFA(8.22)

북 출산율, 현재 인구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못미쳐

미국 인구조화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은 북한의 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부양 인구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함. 2018년 북한의 출산율은 1.9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인 대체 출산율 2.1명에 못 미쳐 북한의 전체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설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2018년 북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10%지만, 앞으로 약 30년 후인 2050년에는 이보다 2배 증가한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올해 북한의 유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2명으로, 2017년 16명, 2016년 25명과 비교했을 때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북한 5세미만 사망률 남한보다 8배 높은 1000명당 24명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4명으로 남한의 3명보다 8배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017년 전체 북한 인구의 25%가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예방접종률 증가와 사망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재 북한의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남한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됨.

<전력>

아시아경제(8.1), RFA(8.1, 8.9, 8.10, 8.11)

북,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난 타개 노력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메탄가스 생산 등 대체연료를 개발해 사용할 것을 적극 선전하고 있음. 또한 북한 당국이 러시아산 액화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도시가구를 위주로 보급하고 있음. 액화가스는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열효율도 높고 깨끗한 연료로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추세임.

한편, 북한 당국은 전력 과소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부 가전제품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에는 평양시민에 한해서 사용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짐. 주민들은 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전력 원조를 받기 시작됐다고 추측하고 있음. 평양의 전기 공급이 개선되면서 최근 북한에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시행 하는 등 전기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시장>

RFA(8.17, 8.27, 8.21, 8.27, 8.28, 8.31)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이 가지는 의미와 돈주의 역할

최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시장이 436개가 있으며, 이들이 내는 세금과 임대비용이 5680억 달러(한화 약 633억 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돈주는 무역과 관광업 등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돈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정보 유통과 사회 조직 생성이라는 점을 강조 함. 그런데 사회적 연결망 형성의 진행속도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점에서 시장이 북핵 위험에서 지켜 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북한 물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3차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과의 밀무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 들여온 상품이 시장을 유통되고 있어 식량을 비롯한 상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평성 돈주들의 교외 이주

북한에서는 법률상 주택은 국가의 소유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소유라는 통념이 확고히 자리 잡음. 돈주들은 그동안 대도시에서 시세가 수만에서 십만 달러가 넘는 최고급 아파트를 선호해왔으나, 최근 최고급 아파트를 팔고 자연환경이 좋은 교외로 이주하는 추세임. 그동안 돈주들이 투자해 건설해서 분양한 아파트는 사후에 당국이 강압적으로 특정인의 입주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박탈하기 어려웠으나, 교외에 지어진 독채는 당기관이라 권력을 쥔 간부들이 불법 등의 시비를 걸어 헐값에 몰수하거나 입주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음. 그럼에도 최근 5명이나 되는 돈주들이 교외로 이주한 것은 주택 소유권을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저렴한 임대료로 제조업체 유치 노력

농촌지역의 농장 간부들이 국영공장의 10분의 1수준의 훨씬 싼 임대료로 농장건물과 토지를 임대해주면서 도시지역의 제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소식통은 “생산에 필수인 전기와 설비, 건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돈주들은 국영공장에 수익금의 30% 이상을 꼬박꼬박 바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돈주들은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국영공장을 임대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농촌의 농장시설을 임대한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면서 “하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머리가 트인 농장간부들이 먼저 싼 임대료를 제시해 도시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끌어들이므로써 농장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함.

<농업 · 식량>

RFA(8.6, 8.28)

폭염으로 올해 농사 피해 우려

폭염으로 북한의 올해 농사 작황이 좋지 않아 장마당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협동농장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개인이 일정기간 국가로부터 임대한 소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던 주민들의 피해는 더 큰 상황임. 대부분의 소토지가 산비탈을 일구어 조성한 농지로 경사면에 있다 보니 피해가 더 크다고 함.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도시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농사까지 안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폭염 피해가 너무 심해서 민심까지 흉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불안감을 내비침.

북한 주민 53.7% 농지 보유

최근 유니세프(UNICEF)가 발표한 북한 민생 실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가구 53.7%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지 보유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농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황해남도(68.5%)이며, 농지 보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평양(18.8%)로 나타남. 한국 내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1946년 토지개혁 이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농지 보유’라는 것이 ‘폐기밭(협동 농장에서 가구 별로 나눠준 작은 밭)’을 의미하거나, ‘분조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분조관리제는 국가에서 땅을 대여해서 농작물의 60%는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임.

<보건>

매일경제(8.7), DailyNK(8.2), RFA(8.8).

영·유아 영양실조 감소 추세지만 지역 간 차이 보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장기적 추세와 국제적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0세~6세)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이 지난 20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지역별 영양실조 발생 비율은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10년(1998~2009)이 넘는 기간 동안 만성 영양실조 비중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향후 이들이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된다"며 "만성 영양실조의 경우 해당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심지어 노동생산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함.

북한 '홍역 퇴치국가' 인증 받아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최근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 받음. 북한을 관할하는 WHO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처는 지난 3일 "(관할국 중) 북한과 동티모르 2개 국가가 홍역을 퇴치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힘. WHO는 인도 델리에서는 지난 달 31일부터 지역홍역퇴치 인증위원회를 열고 북한과 동티모르가 자국 내의 토착화된 홍역 전파를 3년 이상 차단했다는 것을 인증함. 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 인증 요건은 토착화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3년간 발생하지 않고, 홍역 2회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주민생활>

RFA(8.4), DailyNK(8.28)

장마당 이용시간 제한으로 주민통제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장마당 개장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려짐.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일 "지난 봄 모내기철이 시작되면서 지정된 장마당 이용시간 제한이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며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주민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장마당을 계속 통제하는 당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함. 또 다른 소식통은 "작년까지만 해도 장마당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려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며 "장마당이 활성화 되면서 국가행사 같은 사회동원에 참여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자 당국이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장마당 이용시간 제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함.

인민군 부대 급식 일부 개선

최근 북한 군부대에 식자재 공급이 늘어났다는 소식임. 그 원인으로 분조가 활성화 되면서 계획량 이상은 개인이 가져감에 따라 전체적인 식량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군부대 별로 부식 공급을 위한 자체 부업지를 운영한 것도 일조함.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부대 급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와 함께 현지지도를 강화한 행보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군부대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때문에 간부들의 군수품 횡령이 감소하였을 수도 있음.

대외경제

<해외노동자>

매일경제(8.3), 조선일보(8.3)

북한 숙련노동자 해외송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는 북한노동자 신규허가서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들은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WSJ) 러시아 내무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엔의 대북제재(2375호)에도 북한의 신규 노동자 약 1만명이 러시아에 등록되었다는 보도임.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이 연간 약 20억달러(2조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추산. 미국 C4ADS의 보고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설명(북한의 해외노동자 중 80%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파견).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단순산업(건설, 수산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인식과 달리 국방·IT분야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근무해왔다고 분석. 예를들어, 러시아의 핵, 국방, 석유산업의 나노 세라믹 업체인 네브즈세라믹스는 2015년 북한노동자 65명을 고용. 네브즈세라믹스는 독일,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과 거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이 전세계 공급망에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임. 북한이 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숙련노동자를 통해 국방·IT와 같은 중요기술들에 접근해 왔다는 해석임.

<남북관계>

뉴스1(8.7), RFA(8.10), VOA(8.13)

북한산 석탄 러시아 산으로 위장반입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한국으로 불법 반입된 것으로 나타남. 규모는 약3,500톤이며,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잠시 하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에 반입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석탄 수출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항,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운송한 뒤 러시아 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해왔다는 보도임.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무역회사는 러시아무역회사에 톤당 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한편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 채택 이후 석탄반입 협의가 확인된 선박 4척(스카이엔젤, 리치글로이, 사이닝리치, 진룡 등)에 대해 입항금지조치를 내림.

<북중관계>

뉴스스(8.16), 서울경제(8.16), 국민일보(8.20), RFA(8.24)

훈춘-나선 중국 관광객 증가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와 함께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의 서방 여행사들은 북한측으로부터 관광 중단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금지조치는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도임. 하지만, 관련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지린성 훈춘에서 북한의 나선특별시 원정리로 이어지는 취한허 세관에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관광객들은 나선에서 1박2일, 2박3일의 관광상품을 이용하며, 당일 일정으로 북한의 수산물을 먹고 오는 상품도 인기라고 함. 접경지역 근처에는 대규모 취안허국제통상구 종합통관건물과 부속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북한의 원정리에는 지난해 완공된 원정국제시장 건물이 활발히 운영중에 있음. 최근 북중 교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접경지대의 부동산, 건설시장 등이 영향을 받고 있음. 단동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약 50% 급등하였음. 또한 중국 정부가 훈춘-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관측됨.

中, 단둥-신의주 신압록강대교 자금지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 북중접경지역의 경제 및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에 함께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임. 또한 올해 8월 중국정부가 2014년 완공된 이후 공사미진으로 개통이 미뤄지고 있던 신압록강대교에 대한 공사비 약 6억위안을 지원했다고 전해짐. 접경지역의 소식통은 올해 안으로 신의주세관과 현대식 물류창고도 건설될 것이라고 덧붙임.

<인도적 지원>

조선일보(8.7), RFA(8.9), VOA(8.14, 8.16)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영향,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

유니세프에 따르면 8월 중순 모금액은 전체 대북지원 목표액수인 1,650만달러의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제비정부기구(ACAPS)의 인도주의접근성보고서는 북한을 인도주의 접근을 거의 할 수 없는 국가로 평가함. 특히 군수공장이 모여있는 자강도의 경우 국제지원단체 직원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며 북한 당국의 통제역시 심하다고 전함. 유엔세계식량계획(WFP)는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송금, 지원 물품을 운송할 선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8월 6일 대북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 가이드라인에는 지원품목에 대한 설명, 수량, 운송경로, 관계자 목록 등의 세부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가이드라인은 인도적지원을 위한 원조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역시 포함하고 있음. WFP는 대북지원이 유엔안보리 결의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과 제재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8.10, 8.20)

아래 표는 8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 단체 (국가명) | 지원일 | 지원품 | 지원액 혹은 지원량 | 비고 |
|-------------|----------|-----|---------------|------------------|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 2017년 한해 | 지원금 | 약 1,200만달러 | - 신속대응지원금: 약 630 |

| 단체 (국가명) | 지원일 | 지원품 | 지원액 혹은 지원량 | 비고 |
|-----------------|---------|--------|---------------|---|
| (CERF) | | | | 만달러 - 자금부족분관련 지원금: 약 600만달러 |
| 국제적십자사 (스웨덴) | 2018. 8 | 구호단 파견 | 미정 | 북한의 폭염으로 인한 피 해상황 확인 및 인도주의 긴급 지원 |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8.01] “北 전력난 완화는 중국의 은밀한 지원 덕”(아시아경제)
- [2018.8.01] 北 5세미만 사망률 1000명당 24명…南보다 8배나 높아(파이낸셜뉴스)
- [2018.8.01] 북, 평양시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RFA)
- [2018.8.02] “北 영유아 영양실조 감소 추세지만 지역 간 격차 커져”(DailyNK)
- [2018.8.03] “북한, 국방·IT숙련노동자 해외송출로 기술력 확보”(매일경제)
- [2018.8.03] WSJ, “러시아,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北노동자 신규허가”(조선일보)
- [2018.8.04] 북, 주민통제 수단으로 장마당 이용시간 제한(RFA)
- [2018.8.06] 유엔 보고서, 북한 주민 53.7% ‘농지 보유’(VOA)
- [2018.8.07] 세계보건기구, 북한 ‘홍역 퇴치국가’ 인증(매일경제)
- [2018.8.07] 北, 재작년부터 러리아산 위장해 석탄 수출해 왔다(뉴스1)
- [2018.8.07] 유엔, 북에 인도적 지원때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승인(조선일보)
- [2018.8.08] 캐나다 NGO “북 북부 산간지방 아동 영양실조 심각”(RFA)
- [2018.8.09] “북 실효성 없는 대체연료 개발로 주민 원성 높아”(RFA)
- [2018.8.09] “북 인도주의 접근 거의 불가능…자강도는 접근 안돼”(RFA)
- [2018.8.10] 북, 평양에만 24시간 전력 공급(RFA)
- [2018.8.10] 한국,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확인…“러시아산으로 위장반입”(RFA)
- [2018.8.10] 국제적십자사 “북 폭염 구호단 전격 파견”(RFA)
- [2018.8.11] 북, 러시아 액화가스 수입 늘려 연료난에 대비(RFA)
- [2018.8.13] 한국정부, 북한석탄 반입 선반 4척 입항금지 조치(VOA)
- [2018.8.14] WFP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에 큰 차질…송금, 선박 수송 제한”(RFA)
- [2018.8.16] UNICEF “대북지원 모금 목표의 17% 불과”…“엄격한 감독, 규약 적용해야” 지적도 (VOA)
- [2018.8.16] [한반도 안보 키 쥔 중국] 북중접경지역 개발 탄력…중이 한반도 해빙 최대 수혜(서울경제)
- [2018.8.17] 북 물가, 대북제재 속에서도 안정세(RFA)
- [2018.8.17] 北, 9.9절 앞두고 중단체관광만 금지한 듯..서방 단체관광은 계속(뉴스1)
- [2018.8.17] 대북제재?...北나선가는 세관엔 中관광객들로 북새통(국민일보)
- [2018.8.21] 평성 동주들은 왜 최고급 아파트 팔고 교외 독채로 갔나?(DailyNK)
- [2018.8.22] “북 출산율, 현 인구 유지 불가능…인구 감소할 것”(RFA)
- [2018.8.22] 미 재무부, 북한 석유 환적한 러시아 기업과 선박 제재...이달 세 번째 대북

독자제재(경향신문)

- [2018.8.24] 중, 북한에 신압록강대교 개통 자금지원(RFA)
- [2018.8.27] 빅터 차 “북 시장 활성화…경제체제 전환 불가피”(RFA)
- [2018.8.27] 북 국영농장, 싼 임대료로 제조업체 유치(RFA)
- [2018.8.28] “北 경제 희생의 열쇠, 돈주가 쥐고 있다”(국민일보)
- [2018.8.28] 북, 폭염으로 올해 농사 전망도 암울(RFA)
- [2018.8.28] 북 인민군 부대 급식 일부 개선돼…“남새·공류·고기반찬 제공”(DailyNK)
- [2018.8.31] 북한에 공식적 시장 436개 있다는 것의 의미(중앙일보)